

◎ PRDC 발생 감소

농림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관리시스템(AIMS)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방역기관, 수의과대학, 민간병성감정기관 등의 진단결과 지난 '05년 모두 50건의 PRDC 발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들어 지난 4월까지의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농림부는 그간의 진단실적으로 감안, PRDC가 지난 '01년(40건) 처음 확인된 이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05년에는 평균치 보다 적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농림부의 집계에 의하면 PRDC는 △ '02년 1백52건 △ '03년 1백73건 △ '04년 1백77건 등 지난해 이전까지는 계속 증가, '01~'05년까지의 평균 진단실적이 1백19.8건에 달하고 있다.

농림부는 PRDC가 6, 7월에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나 연중 발생하는 질환인데다가 올초 이후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축장당 검사원은 평균 1.15명으로 일본 11.8명, 유럽 8~10명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1998년 축산 식품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됐을 당시 별도의 인력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해 도축검사 보조원을 100명 충원한 데 이어 7월까지 30명을 추가로 증원한다는 계획이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전문가들은 도축검사 보조원뿐만 아니라 실제 도축업무를 관장하는 도축검사관의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축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도축장과 축산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법규를 위반하고 위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축장은 정부 지원을 끊고 현대화를 위해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 또 항생제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과 함께 이들에 대한 홍보 강화도 요구된다.

◎ '양돈장 해썹' 사업 확대된다

◎ 단속인력 '확' 늘려 위생검사 강화를

축산물 가공이 처음 이뤄지는 도축장의 경우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화해 시설의 현대화는 이뤄졌지만 위생검사 인력 수준은 축산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돼지 생산단계에서의 해썹이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음에도 40농가를 선정한 농림부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여 농가가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양돈협회가 실시한 '05년 양돈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농가의 85% 이상이 해

썩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처럼 해썩에 대한 열기가 높은 것은 최근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농림부 외에 농협이나 각 도, 양돈조합, 사료회사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썩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는 양돈농가 해썩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해썩 지원 농가수를 '08년엔 올해의 2배인 80농가 이상으로 증가시킬 방침이다. 또 경기도를 비롯한 각 도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해썩 지원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며 도드람 등 조합도 이 같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사료회사들도 양돈장 해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관계자들은 해썩컨설팅 업무가 늘어난 만큼 해썩 컨설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문가 확보 및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지정 컨설팅 기관외 농림부 해썩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 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시범사업 실시

농림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통해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자원화 시설을 확충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 밀집 사육지역이나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대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중점 설치, 우선 내년에 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 개별농가의 분뇨처리 시설은 유형별 장·단점, 경제성을 종합 분석해 축종별, 규모별, 지역여건을 감안, 모델을 선정해 보급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현재 부산물 비료로 취급되는 퇴비를 유기질 비료로 분류하고 올해 말까지 부속도 판정기준을 설정, '08년 보급키로 하였다. 또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조합 가운데 매년 15개소를 선정, 개소당 2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환)키로 하였다.

농림부는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10년까지 5만ha로 확대하는 등 퇴·액비 대량 수요처를 오는 13년까지 퇴·액비 사용 농경지를 전체 농경지의 40%인 70만ha로 늘리고 토양 유기물 함량을 2.5%(04년 2.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07년 축발기금운용액 금년보다 늘어날 전망

농림부는 지난 12일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축산발전기금으로 총 1조593억원을 책정, 올

해 9천941억원에 비해 6.6% 증액하였다.

농림부는 이를 친환경축산과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07년에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에 211억원을 처음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사업에 전년(10억원)보다 320% 증액한 42억원을, △조사료생산 기반사업 324억원('06년 275억원 17.8% 증액) △학교우유급식사업 177억원('06년 166억원 6.6% 증액)을 책정하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키로 하였다.

반면 브랜드경영체 및 축산물도축가공업체에 대한 종합지원자금은 각각 1천697억원, 1천530억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16.9%, 14%를 줄였다.

◎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가장 많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결과 5월말 현재 돼지고기가 312건으로 전체 원산지 위반 건수 1천722건 가운데 1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중 원산지 허위표시가 207건, 미표시 105건으로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는 164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돼 돼지고기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에도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이 569건으로 전체 3천231건 중 17.6%를 차지해 1위를 기

록하였다.

◎ 돈육 A·B등급 출현율 상승세 계속

최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5월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는 105만209마리로 지난달 105만8천29마리에 비해 0.7%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A등급은 35.9%(37만7천 188마리)를 차지, 4월 35.7%(37만 8천180마리)에 견줘 0.2%p, B등급 30.2%(31만6천 717마리)로 한 달 전 29.5%보다 0.7%p 각각 올랐다. 이로써 A·B등급 출현율은 66.1%로 전월 65.2% 대비 0.9%p 높아지면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동기 67.7%에 비해서는 1.6%p 낮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락가격도 크게 올라 5월 농협서울공판장 등급별 평균가격은 A등급 4천580원, B등급 4천417원, C등급 4천221원으로 전달 대비 각각 18%, 20.1%, 24.6% 상승하였다.

◎ 돼지고기 수입량 한달만에 증가세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5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1만9천183톤으로 전월 1만8천283톤보다 4.9%, 지난해 동기 1만6천496톤에 비해 16.3%가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8만6천 305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9만3천200톤에 견줘

7.4%가 감소하였다.

부위별로는 삼겹살이 8천712톤(45.7%) 앞다리 4천247톤(22.3%), 목심 2천834톤(14.9%), 갈비 1천886톤(10%), 기타 1천354톤(7.1%)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미국이 5천505톤(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2천444톤(12.7%) 벨기에 2천185톤(11.4%) 칠레 1천941톤(10.1%) 순으로 집계되었다.

◎ 냉도체 돼지 육질 '파란불'

물돼지 출현율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가운데 1+와 1등급 돼지도 늘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5월 냉도체 육질등급판정을 받은 돼지는 1만8천177마리로 전월 1만7천516마리에 비해 3.8% 증가하면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해 동기 1만2천838마리보다 무려 41.6% 많았다.

이 가운데 물돼지(PSE육)는 1천418마리로 7.8%를 차지, 5개월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던 4월 8.3%에 견줘 0.5P, 작년 동월 9.2% 대비 1.4%가 각각 낮았다. 또한 1+등급 3.6%(646마리), 1등급 24.4%(4천432마리)로 한 달 전 2.9%, 22.9%에 비해 각각 0.7%P, 1.5%P가, '05년 5월 2.8%, 19.4%보다 각각 0.8%P, 5%P가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 돼지고기 품질평가 기준안 마련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 8일 축산연구소 친환경축산관에서 삼겹살 및 목심에 대한 품질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품질에 따른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등급의 소매단계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관능검사에는 삼겹살은 근육과 지방의 배합 정도에 따라 표준적인 것, 지방이 많은 것, 지방이 적은 것으로, 목심은 근내지방도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느냐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평가되었다. 또 실물을 본 후 외관상 선호도 부분과 실질적으로 먹고 나서의 풍미 등을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돼지고기 신규 브랜드 9개 선정

지금까지 선정된 20개 업체를 포함 총 29개의 돼지고기 브랜드 경영체가 2013년까지 우수 돼지고기 브랜드로 집중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달 26일 축산물브랜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의회를 통해 올해 신규로 돼지 9개, 한우 15개의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하였다. 이로써 '04년과 '05년에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를 포함 돼지 20개, 한우 44개 등 총 73개소가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돈육 브랜드 경영체는 다음과 같다.

△ 강원6월의 아침(6월의 아침) △ 강원양돈농협(깊은산 맑은돈) △ 강원창영농법인(백두대간포크) △ 경기 남부축협연합(동충하초포크) △ 경기서북부축협연합(돈모닝 포크) △ 진안무주축협(마이돈포크) △ 충남영농법인양돈사랑(해장생) △ 충북다살림영농법인(자연N포크) △ 해송영농법인(맛사돈).

농림부는 또 이날 심의회를 통해 올해 돼지의 경우 신규 9개 업체에 168억원, 기존업체 가운데 2개 업체에 추가 85억원 등 11개소에 253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한우의 경우 신규 15개 363억원, 추가 11개 426억원 등 26개소에 789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올해 축산물 브랜드 사업에 총 1천343억원(브랜드사업 1천43억원, 무이자 인센티브 300억원)이 지원된다.

◎ 농축산 유전자원 관리 강화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종자은행이 국가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구로 확대, 개편된다.

최근 농림부는 농업유전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종자은행을 유전자원 국가책임기관인 ‘농업유전자원연구소’(가칭)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장기보존, 정보화, 저장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농림부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의무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였다. 아울러 유전자원을 관리하던 기존의 국가기관 등은 유전자원의 수집, 평가, 증식 및 활용을 위한 및 중·단기 보전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로 유전자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각 자원별 정보시스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돼지의 경우 4품종의 2천 586마리의 유전자원을 축산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 PED 발병 건수 크게 증가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PED는 지난 4월 7건 발생, 전월 2건에 비해 5건이 늘었으며 감염두수도 2천140마리로 3월 70마리보다 30배 이상 많았다.

또한 작년 동기 8건보다 1건 적었으나 발병두수의 경우 5배 이상이었다. 이로써 금년 PED 발생건수는 총 15건, 3천690마리로 전년 동기간 14건, 1천811마리 대비 각각 7%, 103.8% 증가하였다.

◎ 구제역 바이러스 변화 중, ○형서→아시아 1형으로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동남아 지역에

유행하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이 전에 발생된 O형이 아닌 아시아(Asia)1형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구제역 O형 바이러스가 '05부터는 혈청형이 아시아 1형으로 바뀌어 현재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아시아 1형은 소에 친화성이 높아 주로 소에서 감염되고 있지만 실험실 실험 결과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도 돼지에 감염될 수 있어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검역원은 당부하였다.

한편 구제역 바이러스는 O, A, 아시아1, C, SAT1, SAT2 및 SAT3로 총 7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아시아1형은 백신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미국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 부상 중

미 육류수출입협회는 미국과 EU 캐나다 등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의 수출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해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미국이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실제 EU와 캐나다, 미국의 '01년 돼지고기 수출량(미 농무부 자료)은 각각 113만5천톤, 72만8천톤, 70만7천톤으로 미국이 3위를 차지하였으나 지

난해의 경우 143만톤, 107만5천톤, 122만9천톤으로 미국이 캐나다를 따돌리면서 2위로 올라섰다. 또한 미국의 올해 4월말 돼지고기 수출량은 43만1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가 증가하면서 캐나다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 금년 말 예상치는 미국 126만3천톤, EU 145만톤으로 15% 가량 차이를 보여 '01년 60%에서 격차를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가금육 및 쇠고기의 공급이 부족한데다 미국 달러약세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 멕시코

돼지고기 수급 동향

생산량은 지난 97년 이후 10년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120만톤으로 지난해 117만5천톤에 비해 2.1%, 10년 전인 '97년보다는 27.7% 늘 전망이다.

소비량과 수출량은 각각 164만톤, 6만5천톤으로 전년 161만5천톤, 5만5천톤에 견줘 각각 1.5%, 18.2%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생산과 소비 모두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소비량이 더 빠르게 늘어 자급률은 10년 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올해 자급률은 73%로 전년(72%)과 비슷한 수준이나 '97년 95% 대비 22%p 낮을 것으로 추정되

었다. 수입은 50만5천톤으로 1년 전에 견줘 2%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필리핀

구제역 관리체계 강화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필리핀은 구제역이 도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대책본부를 가동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구제역 방역비로 연간 20만 폐소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시 소속 검역관과 지방 검역관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게 될 대책본부는 도시로 유입되는 불법 동물, 육류, 축산물을 차단하는 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다.

◎ 일본

도토리 · 고구마로 돈육 육질 향상

일본에서 도토리와 고구마 줄기를 이용, 돼지고기의 육질을 개선시킨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돗토리현의 한 가축시험장은 비육후기 돼지에게 매일 배합사료와 함께 도토리를 곱질 채 1kg씩 섞어 먹인 결과 고기의 맛과 향을 좋게 하는 지방산인 ‘팔미트레인산’ ‘오레인산’의 양이 늘어난 반면 맛을 떨어뜨리는 ‘리놀산’ ‘리노렌산’은 줄었다는 것이다.

규슈 · 오키나와의 농업연구센터는 돼지에 고구마 줄기를 먹인 결과 여름철 더위 스트레스를 줄여 육질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EU

돼지고기 생산량 늘 전망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던 EU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었다. 최근 유럽위원회는 『'05~'12년 주요 농축산물 수급 예측』을 통해 역내 돼지고기 수요 증가 영향으로 올해부터 생산량이 증가세로 돌아서 12년에 2천197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신규가맹국들의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했던 '05년 2천120만톤에 비해 4% 가량 늘어난 양이다. 위원회는 또 수요증가와 함께 폴란드를 비롯한 신규 가맹국들이 돼지고기 생산에 투자를 늘리고 기존 EU 국가로부터 생산 기술이 이전되고 있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위원회는 소비의 경우 12년 1인당 소비량이 44kg으로 '05년 43kg에 비해 2.3% 가량 늘며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수출과 수입도 12년에 각각 144만톤, 2만9천톤으로 '05년 135만6천톤, 1만3천톤보다 각각 6.2%, 123% 늘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종돈수출협의회

2006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종돈수출협의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8일 축산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 종축경쟁력제고사업 추진결과보고와 2006년 종축경쟁력제고사업 협의가 있었다.

2005년 추진사업으로 종돈수출을 위한 VM 방콕 국제 축산박람회 참가, 필리핀 정부관계자 및 종돈장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국제축산박람회와 연계한 동남아 바이어 초청 종돈수출 간담회 개최, 태국 현지에서 한국 종돈 세미나 개최 등 종돈수출의 길을 열고자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필리핀, 베트남에 순종돈 포함, 837두를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한국종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종돈의 태국검정소 출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기존 수출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수출시장 개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주)금보육종

체육행사 개최

(주)금보육종(대표 장성훈)은 지난 5월 21일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한 송암레포츠에서 전 임직원 가족 및 관련업체와 함께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체육행사는 축구, 족구 등의 스포츠를 통하여 조직의 친화력 및 단합을 도모하였고, 여직원 및 자녀들이 함께 한 발야구, 축구, 전 직원이 모두 참석한 줄다리기 등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였다. 5월 가정의 달에 실시한 이번 체육행사는 금보의 다양한 연중행사의 한 축으로 정착된 모습이다.

피아이씨코리아(주)

끊임없는 육종 개량을 위한 투자

세계 제1의 종돈 육종회사인 피아이씨코리아(주)(대표이사 이봉재)에서는 지난 5월 25일 17두의 종돈을 캐나다의 PIC 유전 핵돈군 농장에서 도입하여, 검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6월 8일 피아이씨코리아(주)의 핵돈군(GGP) 농장에 입식시켰다.

피아이씨코리아(주)는 이번에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종돈을 도입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종돈들은 PIC사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능력 유전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량된 종돈들이 도입되었다.

앞으로도 피아이씨코리아(주)에서는 끊임없는 육종

개량의 투자를 통해서 고객농장에 육종개량의 효과가 크고, 빠르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력 수의사 채용

피아이씨코리아(주)는 지난 5월 18일부로 경력 수의사 최경순 씨를 채용하였다. 이번에 입사한 최경순 수의사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종업계에서 3년간 근무해 오다가 피아이씨코리아에 합류하게 되었다. 최수의사는 앞으로 고객 돈군 건강 유지팀(Health Support Team)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피아이씨코리아(주)는 한국형 후보돈인 '나이스맘'과 한국형 웅돈인 '나이스큐'를 사용하는 고객농장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고객 돈군 건강 유지팀(Health Support Team)을 통하여 최상의 수의 기술지원 업무를 펼칠 예정이다.



가야육종은 ISO22000인증을 위해 6개월의 준비과정과 오하식 전무를 중심으로 식품안전팀을 구성, 철저한 준비를 거쳐 ISO22000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시스템 운영 후 반복적인 심사와 개선을 거쳐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가야육종은 돼지고기 생산의 기초돈군으로서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가야육종(주)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지난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인정원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ISO 22000 인증축진대회에서 가야육종(주)(대표 허정래)이 종돈장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은 ISO9001과 CODEX의 HACCP 원칙 등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시스템적 요인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구조로 설계된 국제표준이다.

문경FINE

2005 최우수 종돈장 선정

문경FINE(대표 이경록)이 대한양돈협회 제2검정소(소장 강왕근)의 '2005 최우수 종돈장'에 선정되었다.

제2검정소에 따르면 문경FINE은 지난 한해동안 수퍼돈 및 최우수돈 수상횟수, 선발지수, 합격두수, 합격률, 농장검정두수, 출품두수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어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두록부문 우정종돈(대

표 심봉구) △랜드레이스·요크셔에 보광축산(대표 김성찬)이 각각 선정되었다. 특히 보광축산은 농장검정부문을 포함해 모두 3개 부문에서 최우수중돈장에 오르게 되었다.

우수중돈장의 경우 그린팜스(대표 이양로)에게, 모범중돈장은 순천중돈(대표 황금영)에게 각각 돌아갔다.

용인AI영농조합법인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인AI영농조합법인(대표 황현상)는 지난 9일 백암면 마을회관에서 창립 10주년 행사를 가졌다.

용인AI센터는 지난 '95년 지역 양돈인 숙원사업인 돼지인공수정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 '96년 고능력 웅돈 인공수정센터 지원 사업으로 선정, '96년 6월 최초로 미국산 고능력 웅돈 10두를 도입하여 회원농가에 고능력 유전자를 공급하게 되었다.

현재는 고능력 웅돈 50두로 전문 돼지인공수정센터

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뿐더러 보유하고 있는 웅돈의 능력에서는 국내의 어느 센터보다 우수한 미국산 고능력 웅돈 100%를 보유하므로 조합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유전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황 현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조합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본 센터의 현재가 있듯이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동반자로 보다는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능력의 유전자공급으로 조합원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주)송강GLC

WFUMB(국제 초음파 의료기기 학술 심포지움)에 참가



▲ MY LAB30 VET

(주)송강GLC(사장 원성오)는 COEX에서 개최한 서울 국제 초음파의료기기 학술심포지움 (WFUMB)에 참석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26일부터 4일간 진행된 WFUMB 행사는 세계 굴지의 초음파의료진단기 생산업체들의 참여로 초음파진단기의 발전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사이다.



(주)송강GLC는 신제품인 [MY LAB30 VET]를 비롯한 최첨단 기종인 [MY LAB70] 등을 선보여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주)중앙진테크

미국 SGI와 풍선주입기 사용 성공사례 농장 등 견학



Absolute Swine Insemination Co.의 풍선주입기의 국내 판매처인 (주)중앙진테크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

고자 농장 실무자들과 함께 9박 10일간 미국 IOWA주의 Des Moines 에서 열린 World pork Expo 2006에 참관, 전 세계 최대의 동결정액 제조 업체인 미국 SGI와 풍선주입기 사용 성공사례 농장 등을 견학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번 일정안에는 SGI의 종돈관리, 선발 과정 및 프로그램 소개와 풍선주입기 사용농장을 비롯한 대규모양돈 농장을 방문하여 모든 선발관리, 발정체크, 풍선주입기 실습 등 체계적이고 알찬 일정을 소화하여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풍선주입기 시범농장은 풍선주입기 사용 후 후보돈에 있어 9주 연속 수태율 100%를 기록했던 농장으로서 풍선주입기 사용시의 놀라운 결과를 실감하게 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기간에는 일본의 선진 양돈농가에서 일정을 같이하여 뜻하지 않은 한·미·일간의 양돈 정보 교류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행사 참가자는 “중앙진테크의 체계적인 일정으로 인하여 다른 때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알찬 여정을 보냈다”고 밝히며 다음 번을 기약하였다.

* 풍선주입기 및 동결정액 문의 02- 587-1388

도드람B&F

성공농장 소개회의 “이천 대지농장”

(주)도드람B&F(대표이사 이영환)는 지난 6월 20일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농장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드람B&F 성공농장 소개회의” 행사를 개



최하였다. 이번에 성공농장으로 선정된 농장은 경기도 이천 소재 대지농장(대표 정상원)으로 2년 전부터 소모성 질병으로 폐사율이 35% 이상 유지되면서 농장의 생산성 하락과 함께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으나 그동안 농장과 도드람B&F의 긴밀한 협력과 피나는 노력으로 현재 폐사율 5% 미만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경영개선을 이뤄낸 농장이다. 대지농장의 생산성 개선 파트너였던 도드람B&F 이수현 부장은 “농장 개선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농장 자돈폐사율이 20% 이상인 농장은 치열한 경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자돈을 튼튼하게 키워내는 것만이 소모성 질병에 의한 폐사를 줄이고 농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대지농장 정상원 사장은 “계속된 농장의 경영난으로 한때 양돈업을 포기할 생각도 했었다”면서 “그동안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돈군별 기록관리를 개선하고 기본 사양관리에 집중하여 ‘튼튼한 자돈 만들기’에 역점을 둔 것이 주효하였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성공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해준 도드람B&F에 감사를 표하였다. 한편 튼튼한 자돈을 만드는데 도드람B&F의 뉴페이스 자돈사료가 큰 역할을

하였으며 섭취량은 물론 증체량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혀 참석한 많은 농장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영환 대표이사는 “10년 후 양돈가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주)도드람B&F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공농장 만들기’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에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돼지 살리자’ 캠페인 성공

퓨리나는 ‘농장을 살리자 돼지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경기도 이천에서 사양가 회의를 열고 퓨리나의 ‘살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폐사율을 크게 줄인 농장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날 소개된 농장 가운데 용인의 유성농장은 돈사 리모델링과 올-인 올-아웃을 통해 폐사율을 10% 이하로 줄였으며 이천의 우리농장 역시 환경개선을 통해 육성사 폐사율을 15%에서 2.5%로 크게 낮췄다.

평택의 천연농장도 ‘살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PED(유행성설사병)을 극복, 이유두수 9.6두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봉래농장의 경우 8년간 MSY(모돈당 연간 출하체중)를 20마리 이상 유지하는 동시에 이유 후 폐사율이 6%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주 중암농장은 분만사를 고상식으로 리모델링한 후 24일령 이유체중 9.3kg을 달성하는 한편 육성사

폐사율을 1% 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간PIG

창간 1주년 행사 및 지역양돈연구회(고창, 영천, 제주) 연합체 결성 기념 세미나



월간PIG(대표 이춘호)와 고창(회장 김홍술), 영천(회장 이광수), 제주(회장 고권진) 지역 양돈연구회가 지난 6월 9일 북제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양돈인 및 관련업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1주년 행사 및 지역양돈연구회 연합체 결성 기념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월간PIG 창간 1주년을 기념하면서 고창과 영천, 제주지역 양돈연구회가 연합체를 결성하여 서로에게 배울점을 찾고 연구하는 것을 모토로 국내 양돈산업의 획을 긋는 첫출발이었다.

각 연구회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 발표와 초청강사 이재길, 김태주 박사의 강의로 농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현장감 내용으로 구성되어 농장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세미나는 진행되었으며 열띤 강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농장주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부인들과 함께 참석하여 건강한 돼지, 선진기술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또한 세미나 내용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열띤 강의가 되었다.

(사)대한양돈협회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에서 친환경 양돈산업 앞장 다짐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16~17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06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에는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전국 지부(회)장, 양돈자조금 관리위원 및 대의원, 양돈조합 조합장 및 조합 임원 등 전국의 양돈지도자 400여명과 박홍수 농림부장관, 엄성호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

의회장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양돈지도자들은 DDA와 FTA 등 시장개방 아래 우리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의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돼지 질병 근절을 위해 소독과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 ▲ 가축분뇨 자연순환을 통해 친환경 양돈산업에 앞장설 것 ▲ 대책없는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며 전국 양돈인의 힘을 모아 이에 적극 대처할 것을 결의하였다.

(사)한국양돈연구회

신기술양돈워크숍 및 간담회 성황리에 개최



(사)한국양돈연구회(회장 김태주)가 주최한 『신기술 양돈워크숍 및 간담회』가 지난 5월 26일(금),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300여명의 양돈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전체적으로 현장감이 넘쳤다는 호평과 찬사를 받았다.



정현규 박사는 농장에서의 소모성 질환(4P) 컨트롤 방법을 정리해 주었고, 배수한 원장과 노경래 대표는

농장을 경영하며 실제 겪은 사례들을 얘기해 줌으로써 참석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많은 양돈인들의 귀추가 주목됐던 간담회에서는,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국내 소모성 질환의 현황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들을 짚어주었다. 또한, 농림부 축산국에서는 갑작스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박현출 국장을 대신해 이재용 축산경영과장과 가축방역과 장기윤 서기관이 참석하여, 질병·분뇨·종돈 분야 등의 정책에 관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이날, (사)한국양돈연구회 김태주 회장은, 지난 3년간 양돈연구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 이승준 직전 회장에게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국양돈대상』후보자 공모, 7/28(금)까지

(사)한국양돈연구회(회장 김태주)는 2006년도 『한국양돈대상』의 수상 후보자를, 오는 7월 28일(금)까지 공모한다. 이 상은, 양돈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을 발굴하여 공적을 기리고, 앞으로 더 많은 양돈 전문가가 배출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추천된 후보자들은 산(□), 학(□), 연(□), 관(□)을 대표하는 실무 단체의 대표자들과 양돈 농가 및 컨설턴트 등을 망라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에 의해 수상자

로 선정될 예정이며, 시상은 10월에 개최될 『전국양돈세미나』 행사장에서 하게 된다.

* 후보자 추천 문의 : 02-588-5990(담당 이공주)

도드람양돈협동조합

“어! 도드람 포크다” 스크린도어 홍보 실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은 ‘도드람포크’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도드람조합은 주부들의 시청이 많은 시간대에 ‘도드람 포크’를 홍보하는 TV 자막광고와 수도권 강원지역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시간대에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탁월한 광고효과로 각광 받고 있는 지하철 내 스크린도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제당 무지개사료

돼지사랑 캠페인 돌입-5월한달간 농장컨설팅 60회

대한제당 무지개사료는 양돈장의 최대 고민인 4P(PED, PMWS, PRDC, PRRS)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작한 ‘돼지사랑 캠페인’이 양돈농가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다.

8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양돈장 폐사율 5% 감소로 농장 수익성 증대와 농장의 돼지 건강성 확보를

통한 추가 생산비 절감을 최대 목표로 전개되고 있다.

대한제당을 이룰 위해 영국 BOOM PAULS사의 농장 분석 및 컨설팅을 한국 농장에 접목, 지난 한달간만 해도 농장폐사율 감소를 위해 전국 지역부장들이 농장컨설팅 60회와 지역별 세미나 10회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폭 기능을 강화시킨 PMWS 전용사료인 스티뮤레이트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대한제당은 장마철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자돈의 설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좀더 세밀한 농장컨설팅과 설사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스티뮤레이트 제품으로 농장의 폐사율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바이오시스템

강원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주)이지바이오시스템(대표이사 최상렬)은 지난 6월 8일(목) 오후 3시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정식은 최상렬 대표이사와 강원대학교 최현섭 총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의 부설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협정식에서 강원대학교는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이 요구하는 인재를 추천하고,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은 강원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강원대학교 부설 동물자원공동연구소(소장 채병조 교수)와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생물자원연구소(소장 현 영)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기의 상호 이용,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연구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교환하였다.

또한 이날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은 강원대학교에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하는 약정서도 함께 전달하였다. 한편, 이날 강원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한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은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되었으며 식품, 의약, 농업, 축산 등 생물자원분야의 응용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대상팜스코

포커스 젖돈/육성돈 20,000톤 달성

출시 초기부터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면서 양돈 사료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상팜스코(대표 이사 조광수)의 양돈 신제품 포커스 젖돈/육성돈이 출시 120일만에 판매량 20,000톤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포커스 젖돈/육성돈은 대상팜스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료 가공 방법인 MS 공법을 적용하여 사료 영양소 이용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최근 개량된 돼지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간의 비율을 적용하여 정육률 개선과 함께 등지방 두께 향상을 동시에 해결한 획기적인 제품이다. 또한 사료 기호성 향상에 따른 섭취량 증가로 성장율이 극대화 되었으며 이러한 품질력은 최근 고돈가 형성과 맞물려 양돈 농가의 수익률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상팜스코는 다가오는 하절기에도 잘 먹고 잘 크는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도드람 조합

북한 양돈장 방문

도드람양돈조합은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도드람은 이를 통해 조합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하나 된 도드람을 만들기 위해 조합의 결집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기로 하였다.

또한 도드람은 (사)통일농수산물사업단이 주관하는 금강산지역 '삼일포 통일 모내기' 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북한의 양돈장을 방문, 양돈시설을 둘러보는 등 북한의 농촌과 양돈업을 직접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부사료

창립 37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부사료(대표이사 정세진 www.sbfeed.co.kr)는 지난 13일 인천광역시 만수동에 소재한 인천대공원에서 창립 37주년 기념행사 및 서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희망은 열린마음으로, 성취는 도전정신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식품사업본부 소속 웰빙



파트너들도 함께 참여하는 등 임직원 화합과 사기충전을 위한 2006년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번 행사는 단합의 장, 새로운 가치 창조, 활력소 및 재충전을 잘 접목시킨 휴(口)라는 컨셉을 기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날은 한국 대 토고전이 열렸던 날로 월드컵 시즌에 맞춰 전 직원들은 붉은악마 복장으로 통일, 혼연일체가 되어 꼭지점 댄스로 응원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그 열기를 배로 더하였다.

부경양돈농협

중장기 경영전략 모색

부경양돈농협은 지난 5~6일 부산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중장기 경영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재식 조합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경영 환경 △사업별 강·약점 △조

합내부 역량 △미래 전략사업 등에 대한 분석 △전략적 과제도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주제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현재 부경양돈농협의 위치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 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재식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주시하고 변화를 예측, 경영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엘랑고동물약품(주)

세계양돈박람회 참관

한국엘랑고동물약품(주)(대표 소무 쿠마르 암밧)은 씨티씨바이오(대표 김성린, 조호연)와 공동으로 지난 6월 5~12일까지 7박8일간 사료공장 관계자들을 모시고 미국 데모인에서 개최된 세계양돈박람회 2006 World Pork Expo를 방문하였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엘랑고는 한국에서 온 고객들을 위해 특별히 미국 생산시설 중 하나인 Clinton 공장을 견학하는 코스를 여정 중에 제공하였으며, 엘랑고 심포지움을 통해 미네소타 대학의 Dr. John Deen 교수와 멕시코대학의 Dr. Jose Antonio교수를 초빙하여 양돈 사양관리에 대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참가자들은 2006WPX와 엘랑고 방문을 통해 많은 신지식과 견문을 넓힌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의 양돈산업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